

“선화와 한국화의 만남”

이명우·송헌씨父子展 ‘회제’



◇소공 이명우 작 ‘달마’.

선화(禪畵)의 거장 소공 이명우(73)와 소장 한국화가 석당 이송헌씨(37) 부자(父子)가 함께 선화전을 개최한다.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조계종 총무원청사 1층 불교

“20년 음악포교 다시 20년 서원”

20일 목동 법안정사서 리사이틀 임주연씨

대한불교합창단 창단 멤버... ‘설산편지’ 등 불러

“음악이 좋고 부처님 일이 좋아 무대에 서다보니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20년동안도 열심히 노래부르겠다는 서원의 자리로 기념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소프라노 임주연씨(법안정사 합창단 단장·47)가 20일 오전 11시 목동 법안정사(주지 효경) 대법당에서 음악활동 20년기념리사이틀을 갖는다. 임씨는 이 음악회에서 ‘나무씨가모니불’ ‘설산편지’ ‘휴식’ 등 찬불가와 ‘그리운 금강산’ ‘별은 빛나건만’ 등 가곡, 오페리아리아 등 모두 14곡을 부른다. 임주연씨의 본 직업은 약사.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해 학창시절 콩쿨대회에서 여러번 상을 수상했던 임씨는 故 김홍호씨에게 발탁되면서부터 대한불교합창단 창단멤버로 불교음악생활을 시작했다.

그동안 각종 불교행사 교도소 위문활동 등 크고 작은 음악회에

회관에서 열리는 선화전(禪畵展)에는 달마와 포대화상 50여점, ‘새’를 주제로 한 한국화 등 총 75점이 전시된다.

“그림 그리는 자체가 수행”이라

는 생각으로 50여년을 선화에 몰두해 온 이명우씨는 젊은 시절 당시 불화의 대가 김일섭선생에게 사사하며 강한 채색의 불화보다는 먹의 세계에 더 몰입해 선화에 정진하게 된다. 간결하면서도 유려하고 때로 격렬한 선으로 달마대사를 형상화하는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화풍을 이룬 이씨는 일본에서 연 달마화 208매(態)전을 필두로 대

20~26일 조계종 불교회관서 달마도·‘새’ 주제 등 75점 전시

만 역사박물관에 초대되는 등 10회의 개인전과 100여회가 넘는 단체전을 통해 선화의 한 획을 그은 대가로 평가받고 있다. 아들인 이송헌씨 역시 새 소 짐승 물 등 자연을 화두로 해 사물의 본질을 찾는 대담하면서도 정제된 미를 표현한 작품을 선보여 왔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두 부자의, 치열한 구도심을 형상화한 선화의 오토만 경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평소 아버지께서는 무욕(無慾)에서 좋은 그림이 나온다고 강조하십니다.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 그림을 그리겠다고 지나친 욕심이 앞선 다거나 감정을 내세우다거나 하는 욕심을 배제하고, 단계를 완벽히 거쳐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시죠.”

이경숙 기자

독특하고 독창적인 다종이전시회를 통해 유럽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김영희씨(52)가 독일 쾰른아트페어에 ‘라스베가스 부처(Las Vegas Buddhas)’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부처님 두상(頭像)작품을 선보여 큰 화제를 모았다.

지난 9~17일 열린 쾰른아트페어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유서깊은 전시행사로서 세계 5대 아트페어 중의 하나. 쾰러 현대의 작가로 참여한 김씨는 다종이전을 섞어 자신이 개발한 특수소재로 부처님의 두상을 만들어

김영희씨 작품 ‘부처님 두상’ 獨 쾰른아트페어서 ‘인기’

‘팝아트와 동양사상을 잘 조화시킨 작품’이란 평을 얻었다. 부처님이 고대 동양의 정신문화를 상징한다면 라스베가스는 현대 미국의 도시문화를 상징하며 광고의 지속함과 함께 마력과 소음의 이기치, 오락과 돈과 소와 한순간에 무장한 강도의 때죽박박 등의 이미지를 혼재시켜 표현했다.

부처님은 명상과 침묵과 자아로부터의 해방과 깨달음 등으로 집약되며 유난히 크고 긴 귀와 조용한 미소, 노래하듯 동그랗게 벌린 입은 동양인인 작가 자신이 사상에 동화되어 함께 숨쉬고 노래하는 모습을 상징하기도 한다.



◇김영희씨가 독일 쾰른아트페어에 출품한 ‘라스베가스 부처’.

삼국사기에 나오는 828년이란 기록은 단순한 기록으로 보아져 ‘최초’란 의미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박범훈씨 ‘동점’ 초연

박범훈교수(중앙대·국립국악관현악단장)는 지난 14일 KBS 홀에서 열린 KBS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의 객원지휘를 맡아 ‘새산조’ 등 6곡을 연주했다. 이번 연주회에서 박씨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동점(東漸)’을 초연했다.

10월 10일 10주년 기념

시 - 조상기씨
소설 - 신상성씨
평론 - 조병무씨

동국대 출신 문인들의 모임인 동국문학인회(회장 홍기삼)는 제10회 동국문학상 수상자로 시인 조상기씨, 소설가 신상성씨, 문학평론가 조병무씨 등을 선정 지난 15일 시상식을 가졌다.

불심시심 <68>

학의 다리 길고 오리 다리 짧다

五觀萬物不齊也 萬물이 한결같지 않음 내 알겠다
(오관만물부제야)
太岳秋毫各異天 태산이나 가을털도 각기 제 천분
(태악추호각구천)
佛短長誰使爾 佛의 길고 짧은 누가 시켰나
(부학단장수이)
鷗鳥黑白亦如然 검고 흰 까마귀 갈매기도 그저 그런 것
(구오흑백역여연)
夢中說夢眞堪笑 꿈속에서 꿈 이야기이니 참으로 우습고
(몽중설몽진감소)
牛背尋牛不足言 牛背를 찾아다니는 것 못돼
(우배수우부족언)
高下從來無二矣 높고 낮음 원래 둘이 아니니
(고하종래무이이)
古人曾已誅鯨魚 옛사람 알았지,
(고인종이영연어) 술개 하하 날고 고기 못에 떠다.

이 시도 무용대사의 시이다. 이 시는 강남부백에게 준 시이다. 지리의 세계는 둘이 아니라는 불어의 사념으로 차 있는 것을 보면, 저 편에서 먼저 교묘적 내용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후론이 든다.

태산과 가을털이 크고 작음으로야 견줄 바가 못되지만, 각기 천연의 자성을 지니기야 다를 바가 없다. 겨자씨에도 수미산이 들어있다는 막힘이 없는 논리이다. 학의 다리 길고 오리 다리 짧지만 다리의 기능으로서의 차이가 없고, 갈매기 회다 하여 더 고상하고 까마귀 겁다 하여 더 추잡한 것도 아니다. 빛으로서의 미추는 없다. 그러하건만 이 바깥 모양에 매달려 부질없는 판단에 빠진다.

꿈이란 허깨비의 미망어린 환상이다.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현실을 미망으로 살고 있으면 그

것이 바로 꿈이다. 그러하건 이것을 진실이라 생각하여 잡속의 꿈을 허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꿈 속에서 다시 꿈을 이야기하는 꼴이다. 이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깨달음이란 이 꿈의 깨어남이니, 깨다와 깨달다는 동의어이다.

등에 올라탄 소를 모르고 소를 또 찾는 어리석음이다. 내 스스로 부처의 본성을 갖추었거늘 밖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부처의 ‘본성’이라 집착하면 또 미망에 빠진다. 그 생각마저 여의어야 한다.

끝 연의 술개와 물고기의 이야기는 유가 경전의 ‘술개 하늘에 날고 고기 연못에서 뛰니, 위 아래에 있는 한결같은 이치를 살피라’ 한 교훈을 인용한 구절이다. 유가의 선비에게 주는 시이니, 유불이 사물의 본질을 궁구함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충찬 (동국대 교수)

‘청법가’ 작곡가 이찬우씨 찬불가곡 연주회 연다

25일 부산국제문화센터

‘청법가’의 작곡가 이찬우씨가 성악가를 위한 찬불가곡 연주회를 오는 25일 저녁 7시30분 부산국제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6월 서울에서의 작곡발표회에 이은 이번 무대에서는 ‘이와같이 나투신 부처님’ ‘비구니’ ‘청산은 나를보고’ ‘부처님 마음’ ‘마음 슬픈 날에는’ 등 이찬우씨가 작곡한 20곡을 김성국교수(부산여전) 김현숙교수(동아대) 이연화씨(동도사 부산포교원 합창단 지휘자) 등 부산에서 활동하는 중견 불자 성악인들이 동참해 연주한다.

지역에서 찬불가 보급에 앞장



서고 있는 이찬우씨는 “그동안 성악가들이 부를만한 성악전문가용 불교적 서정가곡이 따로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불교음악영역을 넓히기 위해 이번 발표무대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불교문화공모상 발표 12월17일로 연기

불교문화현상공모 운영위원회는 '96 불교문화현상공모 심사발표를 11월 30일에서 12월 17일로 연기했다. 심사발표는 개별동보 및 조계종 총무원 3층계시관에 공고하며 불교계 신문에 게재한다. (02)737-9684

‘김교각스님과 茶’ 학술발표회 가져

김교각추진위원회(위원장 김명운)와 (사)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원홍)는 공동으로 지난 15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김교각스님과 차(茶)를 주제로 학술발표회 및 헌다의식을 가졌다. 행사 1부는 김교각스님에게 드리는 헌다의식 및 범패공연, 2부는 학술발표회로 ‘중국구화산과 지장신앙(홍윤식 동국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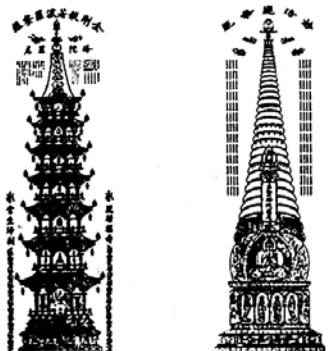
문화소식

수) ‘신라시대의 차문화(김명배 한국차학회장) ‘김교각스님의 생애와 차사상(이영식 한국차문화협회 이사) 등이 각각 발표됐다.

이영식씨는 “김교각스님의 생애로 볼때 우리나라 최초로 차가 전래되었다는 828년(김대립)보다 먼저 100여년전 교각스님에 의해 중국에 전해졌다고 바뀌어야 하므로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的 佛塔다라니”



■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가로)63cm x (세로)1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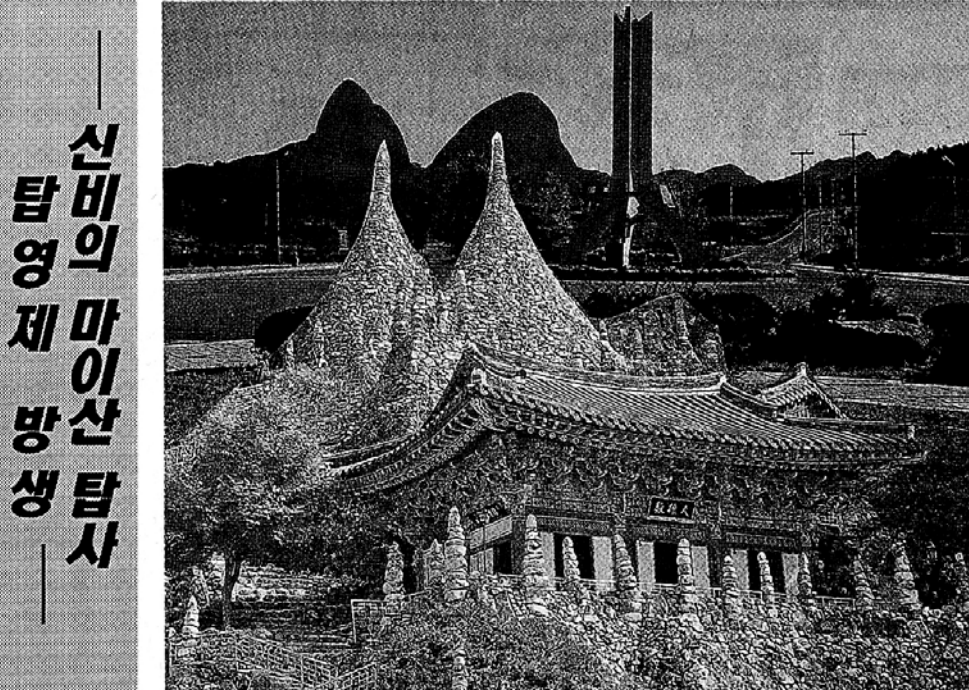
■ 부산, 경상남도 대현불교 상담문의 조계종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864-3740

■ 기타지역 상담문의 및 복지자선청 ① 성지관음회 (회장 예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佛塔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 본회의 佛塔다라니에서, 자세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 이 氣(기)는 심신간의 불균형에 더욱 강력히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 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佛塔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氣(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방출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동안의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이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 그리고 금강경 신라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세와 영계에 파급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저자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기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 현재 살고 있는 병환은 낫을 것인지? ● 언제까지 아를 것인지? 등 어떠한 일든 금강경 신라다라니에 적어 넣고 기(氣) 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성공률(80~90%)는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 때는 2개월이상 佛塔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은빛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은 인간의 몸에 빌붙고, 관념과정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돌고, 몸은 멀고 집안엔 불행이 일어납니다. 이때 佛塔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키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년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리 나옵니다.
⑤ 佛塔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행위로 얻고, 단순히 부처님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佛塔다라니를 이용한 기(氣) 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스트카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기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하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에게 사용될 수 있으며,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 佛塔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佛塔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해한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는 스님용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한국의 불가사의의 만불탑의 오토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